

광양시, 매화 이어 벚꽃·동백... 봄꽃 릴레이 시작

봄꽃집중전시 시작으로 광양천년동백축제·광양벚꽃문화축제 잇따라

광양매화마을의 매화향이 채 가시기도 전에 광양 전역이 다시 꽃으로 물들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의 봄꽃 집중전시회를 시작으로 금호동 벚꽃, 옥룡사 동백나무숲의 동백이 차례로 피어나며 봄꽃이 이어지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에서는 수양벚꽃 아래 리넨롤러스, 톨립, 비올라 등 14종의 봄꽃이 어우러진 집중전시회가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열린다. 꽃벽과 꽃담, 테마·풍차정원, 초가집, 조형물 등 다양한 연출 공간이 마련돼 관람과 체험, 사진 촬영을 함께 즐길 수 있다.

옥룡사 동백나무숲에는 1만여 그루 동백이 붉은 꽃망울을 터뜨리며 장관을 이루고 있다. 도선국사가 사찰의 화기를 누르기 위해 조성한 것으로 전해지는 이 숲은 화제로 사라진 옥룡사 터와 대비를 이

루며 천년의 시간을 간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4월 3일부터 이틀간 제9회 광양천년동백축제가 열린다. 백일장과 사생대회, 둘레길 걷기, 보물찾기 등 체험 프로그램과 시립합창단 공연, 색소폰 연주, 노래자랑 등 다양한 무대가 마련된다.

금호동 조각공원 일원에서는 같은 기간 '벚꽃 향 흐르는 행복한 봄날의 금호동'을 주제로 광양벚꽃문화축제가 3일간 열린다. 광양시립합창단 공연과 벚꽃가요제, 전국백리대회, 버스킹 등 공연 프로그램과 사진전, 체험, 이벤트가 결합된 참여형 문화축제로 운영된다.

비누 만들기, 떡메치기, 캘리그래피, 네일아트 등 체험과 먹거리도 무료로 제공되며, 4,300여 그루 벚나무가 만든 꽃터널과 백운대 야경, 버스킹 공연이 어우러져 봄밤의 분위기를 더한다.



광양읍 서천변 3km 구간 벚꽃길은 광양불고기특화거리와 맞닿아 풍경과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중마동과 광영동을 잇는 가야로 역시 3.5km 벚꽃 드라이브 코스로 봄철 방문객의 발걸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양시 관계자는 "매화에 이어 동백과 벚꽃, 다양한 봄꽃이 차례로 피어나며 광양 전역이 봄꽃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며 "꽃길과 축제, 지역 먹거리가 어우러진 광양에서 봄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신선호 기자



담양군 종축개량 정책, 빛나는 결실

김동관 농가, 체계적 혈통 관리로 전국 최고 수준 품질 입증

담양군(군수 정철원)은 최근 담양읍 황금누리농장의 김동관 씨가 정성껏 키운 우량암소 두 마리를 각각 2,500만 원에 판매하며 담양 한우의 뛰어난 우수성을 증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판매된 암소는 우수한 유전 형질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먹이 급여와 혈통 관리를 통해 길러진 개체로, 마리당 2,500만 원이라는 판매가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최상위 수준이다.

특히 이번 성과는 지난 2014년부터 군이 추진해 온 '우량암소 지원 및 종축개량 사업'을 통해 도입된 개체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얻은 결과로, 담양군의 축산 정책이 현장에서 확실한 성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당 농가인 김동관 씨는 평소 군의 종축개량 정책을 모범적으로 실천

하며 빈틈없는 혈통 관리와 사육에 힘써왔으며, 그 노력을 인정받아 우량암소 육성 분야에서 큰 결실을 보게 됐다.

그동안 담양군은 우수한 능력을 갖춘 암소 무리를 육성하고 개량을 앞당기기 위해 꾸준한 지원을 이어왔으며, 앞으로도 '상위 1퍼센트 우량암소' 확보를 목표로 삼아 농가 소득을 높이고, 담양 한우를 최고급 상표로 만드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물가 상승과 사료비 부담 등 어려운 축산 환경 속에서도 이번 성과가 축산 농가에 큰 희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맞춤형 정책 개발과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한우 개량을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양/이종욱 기자

영암군, 고품질쌀 유통 혁신 본격 착수... 통합RPC 착공

230억 투입 연 3만톤 처리 기반 구축, 농협 8곳 공동 참여

영암군이 고품질 쌀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RPC 착공에 들어가며 쌀 산업 구조 전환에 나섰다. 군은 지난 26일 군서면 성양리 일원에서 '고품질쌀유통 활성화사업' 착공식을 개최하고, 쌀 가공·유통 기반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230억 원을 투입해 벼 가공시설 현대화와 건조·저장시설을 구축하는 것으로, 연간 3만 톤 처리 규모의 통합RPC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관내 8개 농협이 공동 참여하는

통합RPC 방식으로 추진돼 분산됐던 유통 구조를 하나로 묶고, 영암 쌀의 안정적인 유통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생산 중심에 머물렀던 쌀 산업 구조를 가공과 유통, 브랜드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역 농가 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완공 시 영암에서 생산된 쌀의 절반 이상을 직접 가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돼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영암군은 통합RPC를 중심으로 쌀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을 추진하고, 생산부터 유통까지 연결되는 구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승준 영암군 유통산업과장은 "이번

사업은 행정과 지역농협, 농업인이 함께 협력해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올해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전국 최고 수준의 쌀 유통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영암/김희선 기자

영광군은 지난 25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반기 귀농·귀촌인 영농기초 기술교육' 교육생 33명을 대상으로 블루베리·딸기 농가 현장견학을 실시하였다.

이번 현장견학은 지역 정착과 영농기술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론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농업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되

영광군, 귀농·귀촌인 대상 블루베리·딸기 농가 현장견학

었다. 참가자들은 먼저 블루베리 재배 농가를 방문하여 토양 관리와 묘목 선택 등 기초 재배 기술부터 판매까지 실질적인 영농 노하우를 습득했다. 이어 딸기 농가에서는

2단 재배시설과 스마트팜 운영 현황을 견학하며 시설 재배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 사례를 직접 확인했다.

현장견학에 참여한 한 교육생은 "현장을 직접 보고 체험하면서 농업에 대한 이

해도가 높아졌고, 향후 작목 선택과 영농 계획 수립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영광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욱)은 "앞으로도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교육과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광/이현식 기자

장성군이 최근 장성군보건소에서 '방역소독 전담인력 발대식 및 역량강화교육'을 가졌다.

방역소독 전담인력은 각종 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방역소독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제 근로자다. 활동 기간은 올해 10월까지며 총 19명을 모집했다.

"장성군 방역은 우리가!" 방역인력 발대식 개최

19명 구성, 10월까지 활동... 지역 내 방역 작업 전담

이날 행사에선 발대식과 △방역활동 안전수칙 △감염병 대응 및 방역소독 실무 △현장대응 역량강화에 관한 교육이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이모 씨는 "방역장비 사용법 등 현장에 투입됐을 때 꼭 필요한 내용들을 알기 쉽게 배울 수 있어 유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군은 올해로 예정돼 있는 △전남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 △전남생태체육대축전 △전남장애인체육대회 개최에 대비해 체계적인 방역 체계를 확립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는 등 감염병 걱정 없는 지역사회 조성에 앞장설 방침이다.

장성/황해연 기자

완도군, 올해 15억 투입 '작은 섬 공도 방지 사업' 추진

점안장·마을 통행로 정비, 선착장 연장 등 정주 여건 개선

완도군은 '작은 섬 공도(空島) 방지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작은 섬 공도 방지'는 섬 종합 발전 계획 등 각종 사업에서 소외되고 10명 미만 거주, 생활환경이 열악한 작은 섬을 대상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 2023년 행정안전부 공모에 총 6개 작은 섬(장도, 대제원도, 죽골도, 양도, 초완도, 허우도)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올해까지 총 57억 원을 투입, 어업 기반 시설물 정비와 진입로 정비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23년부터 '25년까지 42억 원을 투입, ▲점안장 확충(금일 장도) ▲선착장, 물양장 등 어업 기반 시설물 정비(노화 대제원도, 죽골도, 군외 양도, 금당 허

우도) ▲호안 정비(고금 초완도) 등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이동 편의와 안전성을 향상시켰다.

올해는 15억 원을 투입, ▲점안장 정비(금일 장도) ▲마을 통행로 정비(노화 대제원도) ▲선착장 연장, 물양장 확장(노화 죽골도, 군외 양도) ▲호안 도로 정비(고금 초완도) ▲마을 시설 정비(금당 허우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사업을 통해 공도 위기에 처한 작은 섬 주민들의 생활 편의 및 정주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섬의 체류형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지역 맞춤형 특성화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장선우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